천안월봉고, 국제로봇콘테스트 인공지능 자율주행 부문 전국 1등

1학년 박민주, 박윤경

천안월봉고(교장 김진묵)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한 '제 16회 국제로봇콘테스트(이하 IRIC)'대회에서 참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부문'에서 전국 1등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1학년 박민주·박윤경 학생이 '붕붕나비카' 라는 팀명으로 참가해, 예선, 본선을 거쳐 최종 5명이 치르는 결선에 2위의 성적으로 진출했다. 결선에서 주어진 총 2번의 도전 기회 중 첫 번째 기회에 성공을 거둔 이들은 최종 1위의 성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부문은 자동차 로봇이 오직 코딩만을 이용해 정해진 노선을 자율주행으로 완주해야하는 미션이다. 지난 4월부터 이 대회만을 준비했다던 박민주, 박윤경 학생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학교에서 인공지능 수업 및 캠프를 듣고,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소감을 마무리했다.

김진묵 교장은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에 의한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충남 부여 카누, 제50회 전국소년체전서 메달 휩쓸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획득…부여 카누의 힘 보여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주)은 충남 부여 일원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카누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부여중, 부여여중에서 학생선수 9명이 출전해 부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카누 유망주들과 실력을 겨뤘다.

이영애(부여여중3)양이 여중부 K1 500m 1위, 이영애·김예나 (부여여중2) 양이 K2 50m 1위, 설동우·황희상(부여중3)군이 K2 500m 2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선수단을 격려한 이흥주 교육장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학생 선수들과 코치 및 지도교사, 학교장,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값진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당진교육지원청-당진시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선정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재)은 지난 2일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우수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전국에 12개 지구가 신규 선정 됐으며, 특히 신규 지구로는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 사업까지 공동으로 선정되어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미래가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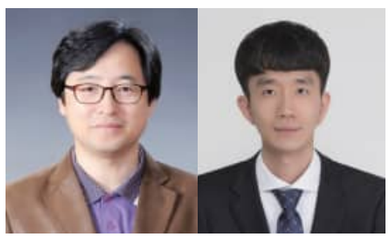
당진은 1기 행복교육지구 기간을 통해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많은 마을교사를 양성했을 뿐 아니라 충남에서 유일하게 당진시청과 당진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합동공간에 근무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2기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되는 당진은 미래교육지구 선정을 통해 또하나의 원동력을 얻었으며, 민·관·학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 한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가고자 계 획하고 있다.

김용재 교육장은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 당진이 한 단계 성장한 행복교육지구로 거듭나 학생뿐 아니라 마을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해 본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충북교육청, 3분기 '친절왕' 선정



▲교원인사과 안광성 장학사(좌), 공보관 최민기 주무관(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1년 3분기 친절왕에 교원인사과 안광성 장학사, 공보관 최민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광성 장학사는 교무·학사 분야 감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중등 신규관리자 인사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따뜻하게 응대하는 친절한 태도로 감동행정을 실천하여 친절왕으로 선정됐다.

최민기 주무관은 신문 보도사항 스크랩 및 배부에 관한 사항, 보도자료 충북교육 소식 홈페이지 게재 및 제공 등 홍보 업무담당자로서, 도교육청 각 부서별 홍보 브릿지 역할을 친절하게 수행하고 매사에 성실하하다는 평가를 받아 친절왕으로 선정됐다.

친절왕에 대한 시상은 지난 1일 월례회의 시 이뤄졌다.

충북교육청은 민원행정 감동구현 우수직원 발굴로 공직사회의 친절공무원 상을 확립하고, 친절·배려의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분기별로 친절왕을 선정하고 있다.

친절왕은 민원처리 협조 등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추천과 '고객의 소리함' 및 '칭찬합시다' 등 민원처리 결과 가·감점을 합산해 선정한다.

/박철우 기자

태안교육지원청, '태안 학부모' 생태환경 마을교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첫걸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은 최근 2주간 학부모 환경생태 마을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학생들과 생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이수한 환경생태 마을교사는 16명으로, 3~4명이 한 조가 되어, 관내 3개교 1학년 5학급의 초등학교에서 수업시연을 진행했다.

각 조는 학교 주변의 나무 관찰하 기, 가을의 나뭇잎을 만져보고 종 이에 붙여보기, 학교 주변의 곤충 을 이해하고 관찰하기, 찰흙으로 나만의 곤충 만들기 등 다양한 주 제로 아이들과 실내외를 병행하며 활동했다.

마을교사 구성이 학부모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소통에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열정 또한 대단했다.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도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한 학생은 수업 말미에 '고맙습니다' 라는 쪽지를 써 마을교사에게 전달 하기도 했다.

김선완 교육장은 "튼튼한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주인 마을교사가 많이 양성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재필 기자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함께 읽어요 또래 북튜버' 동영상 제작

2021년 청소년독서동아리 성료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길재환)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2021년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그 결과물로 '함께 읽어요 또래 북튜버' 동영상을 제작했다.

평생교육원은 지역 학생들의 통합적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중학교 독서동아리는 12명씩 3개반으로 구성해 운영됐으며, 참여 학생들은 1년 동안 읽을 독서를 직접 선정하고 매차시 학생 주도의 발제와 토론,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가지각색 북크리에이터 영상 제작'특강 참여 후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을 위한 책소개 동영상을 직접 만 들어 보며 올해의 활동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브이로그, 뉴스, 인터뷰 형식 등 학생들의 개성이 담겨있는 8편의 책소개 동영상은 본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으며, 안내문의 QR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현수 기자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2021년 찾아가는 수련프로그램 '성료'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원장 김원규)이 지난 4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 100 교 5,0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2021년 찾아가는 수련프로그 램'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장기화로 인해 숙박형 수련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 내에서 수련활동 체험이 가능하도록 당일형 프로그램으로 계획됐으며 해양장비 체험, 구조용품 체험, 캠핑 체험, 해양골든벨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해양·육상 프로그램을 선보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련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지도, 손 소독, 수련장비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 했다.

찾아가는 수련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못하게 되어 아쉬웠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오랫동안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원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숙박형 수련활동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수련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내년에도 학교 현장의 높은 만족도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수련활동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복 기자

세종하이텍고, 개교 수준의 학과 개편으로 새출발

2023년부터 4개 학과체제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 착착

세종하이텍고등학교(교장 최성식, 이하 세종하이텍고)가 미래 산업사회에 필요한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학과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9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으로 선정된 로보트로닉스과(산업용로봇, 자동화), 코스메디컬과(의약, 화장품), 베이커리카페과(제빵, 제과, 식음료) 3개 학과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기존 하이텍기계과(소재가공)를 더한 총 4개 학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2013년 학과 개편 이래 변화하는 학생 수요와 직업 세계에 대응하 기 위한 10년 만의 학과 개편이다.

오는 2022년 세종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재지정 확정과 함께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4개 학과를 모집한다.

세종하이텍고는 학과 개편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 고도화, 실습장 재조직, 기자재 확충, 환경개선, 교원 신기술 연수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학과 개편비 7억 5천만 원을 세종시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비는 고용노동부·교육부·교육청에서 지원받게 된다.

최성식 교장은 "학과 개편과 함께 고교학점제 운영 등 학교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학생 개인의 재능을 마음 껏 키워 갈 수 있는 특성화고로 거듭 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하이텍고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일류세계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특성화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학생 선택과목을 확대해 학생의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는 학교로 조직을 개편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쾌적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개선했다.

또한, 직업계고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업 계획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점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민준 기자

옥천 증약초, "증약이야기 사진으로 그리다"

증약초등학교(교장 김화자)는 오는 30일까지 구읍 교동갤러리카페에서 '증약이야기 사진으로 그리다'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증약초 방과후학교 사진부와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愛사진동아리부가 사진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직접 촬영한 전교생 작품 53점을 전시하는 증약초 제1회 사진 전이다.

증약초 사진 수업은 2020학년도부터 예술강사지원사업 사진 수업을 시작으로 2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창의적체험활동 사진동아리활동에 이어 2021학년도에는 방과후학교 사진부를 개설 운영하며 사진을 통해 세상 과 만나고 있다.

자연과 함께 숨쉬고 꿈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통해 담아낸 세상을 '증약이야기 사진으로 그리다' 사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전시회를 관람한 6학년 이세진 학생은 "친구들과 나의 작품이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어 너무 자랑스럽다. 사진으로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사진 촬영 기법을 통해 새롭고 재미있는 사진을 찍는 활동은 언제나 신나고 즐겁다. 사진은 늘 나와 가까이 있어 좋고 사진과 함께 나의 꿈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한다.

김화자 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시간속에서도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사진들 속에서 희망 가득한 증약이야기를 담아낸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증약이야기 사진으로 그리다'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기국 기자

진천중, 신축 교문 기증식…새로운 도약 예고

진천중학교(교장 김사명)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신축 교문 기증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기증자는 1955년에 졸업한 4회 유휘성 동문으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장학사업을 펼쳐오던 중, 모교의 숙원이던 교문을 건립해 기증한 것이다.

교문은 '진천'을 시각화해 설계했으며 '진천 농다리'를 모티브로 천년의 역사를 토대로 한 원활한 소통의 통로로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공사에 들어가 10월 말에 높이 4M, 길이 16M 규모(1억원 상당)의 새 교문을 준공해 학교측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기증자의 모교이자 모친(이인순)이 음악과 신규교사로 첫 출발했던 진천중학교는 이제, 지역의 역사를 품은 새 교문을 드나들며 더 푸른 꿈을 꾸고, 더욱 밝은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종 기자